

광양 황금산단에 7500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KT·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설계·설비 운영 참여 2025년 완공 소프트웨어 등 연관 산업 유치...새 일자리·세수 증대 등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단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의 전환점을 맞았다. 광양시는 이번 센터 구축을 계기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데이터산업을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황금산단(황금동) A구역에는 7019㎡ 규모 전남광양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오는 2025년 준공된다.

지난 21일 광양시는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주)광양지아이 등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센터 구축에는 7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올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KT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설계·설비 구축·운영에 참여한다.

광양시와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정보통신기술(IT)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등 연관 산업기업을 광양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광양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모두 200명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지방세수 증대 등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산단은 지난 2010년부터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111만5000㎡ 규모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광양항과 울촌산단이 가까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심부로 통했다. 산단 진입 부분에는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가 통과하고 광양항,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가 구축됐다. 산단 북쪽 1km 지점에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지나 접근성이 높다.

황금산단은 광양지역 기반 산업인 1차 금속과 전기장비, 금속가공,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공기조절공급업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해왔다.

황금산단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면 IT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는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광양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 클라우드(정보 저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확대에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자리한 데이터센터에 대해 시설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 핵심시설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광양 황금산단에 오는 2025년 말까지 들어선다. 센터가 건립될 황금산단 전경. <광양시 제공>

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을 지원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은 단순 데이터처리 인프라가 아닌,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T 인프라와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두루 연관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데이터센

터의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 광양이 전남 데이터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일자리로 취약계층 자립 돕는 '순천지역자활센터'

17개 기관 방화복 세탁물 수주 상반기 매출 전년비 30% 증가 다음달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 개소

순천지역자활센터가 올해 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방화복 전문세탁' 일감을 새로 얻게 돼 사업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 위탁 운영하는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들어 광양·여수·보성소방서 등 총 16개 119안전센터, 여수해양경찰교육원과 특수 방화복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명의 자활 참여자가 일하는 '흰여울세탁' 사업장은 17개 기관 세탁을 수주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30%가량 늘었다.

자활 참여자가 한 달 받는 기본 급여는 140만~150만원으로, 매출에 따라 참여자들은 분기별로 최대 70만원의 상여금(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순천지역자활센터가 올해 상반기 세탁한 방화복은 모두 306벌이다.

특수 방화복은 화재·구조현장에서 생긴 그을음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세탁·건조공정이 까다롭다. 전용 세제와 전용 세탁기도 갖춰야 한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전남지역 자활센터 가운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지역자활센터 '흰여울세탁' 자활 참여자들이 올해 들어 17개 공공기관 특수 방화복 세탁을 수주하며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처음으로 특수 방화복 세탁을 시작했다.

세심하게 세탁하고 의류·침구·운동화 등에 대한 수거·세탁·배달 사업을 벌여 지난해 순천시 공공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센터는 세탁 전문가 양성 교육을 벌여 세탁기능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순천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방화복 세탁 외에도 청소, 집수리 등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소독·세척·배송까지 해주는 '에코워싱' 사업단을 개소한다.

이달 현재 6명이 참여하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6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에코워싱' 사업은 어린이집·장례식장·도시락 제작 업체 등에서 생기는 일회용 용기 쓰레기를 줄이고 자활 참여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설명회 단체·기관 등 신청하면 방문

순천시는 시민에게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최적 후보지로 꼽힌 연향동 인근 마을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작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추진 배경과 필요성, 진행 과정 등을 소개한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소방서 등 공공기관 등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신청하면 그곳을 찾은 예정이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이 궁금한 시민은 해동면, 덕연동,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자원과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 제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폐기물처리 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닌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곡성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워케이션' 공모사업 선정...심청한옥마을에 업무 공간 제공



심청한옥마을에 '워크빌리지 인 곡성'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회의하는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며 심청한옥마을에 진행되고 있는 '워크빌리지 in(인) 곡성' 사업을 확대한다.

워크빌리지 in 곡성은 외지인들이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을 활성화해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고향올래'(GOALL來) 워케이션 분야 공모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 곡성군은 이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됐다.

곡성군은 심청한옥마을의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 단위의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상적으로 일하는 곳, 곡성"이라는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

"여수 흐린 수돗물 현상, 유속 변화 탓"

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로 사용량 급증...탁수 제거 작업"

여수시는 최근 무선·소라·울촌 등지에서 발생한 흐린 수돗물 현상은 생활용수 사용량 급증에 따른 유속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탁수 원인을 '상수관로 내 유속 변화에 따른 계절적 탁수 현상'으로 추정했다.

수돗물 탁수 민원은 지난 14일 오후 화장동에서 처음 접수됐다.

이후 17일까지 화장동과 소라, 울촌, 죽림 공동주택 일부에서 잇따라 민원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신고가 들어온 현장에서 탁수 제거 작

업을 벌이고 죽림배수지를 청소했다.

지난 17일에는 탁도가 안정됐음을 확인했다.

상수도관로 유속이 변한 건 징검다리 연휴에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여수시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관로 안 각종 이물질이 흘러나온 '계절적 탁수 현상'이라 보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벌여 오래된 관로를 교체하고 구역화(블록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17개 기업 '시민 안전' CCTV 후원



광양상공회의소와 광양지역 17개 기업이 CCTV 설치를 위해 1억 7950만원을 광양시에 기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시에 1억 7950만원 기탁

광양상공회의소와 광양지역 17개 기업이 CCTV 설치를 위해 1억 7950만원을 광양시에 기탁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등 9개 후원기업 대표와 최병운 광양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법 CCTV 설치 기탁금 전달식'이 열렸다.

기탁금은 지역 내 17개 기업이 시민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내렸으며, 시민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방법용 CCTV 설치에 활용된다.

기업대표들은 "기탁금으로 CCTV가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돼 시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

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에는 방법용 CCTV 1224대와 안심 비상벨 26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관제요원 17명(4조 3교대)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간 2100여 건의 영상정보 제공과 240여 건의 발생 상황 전파를 통해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용 CCTV 확충에 지역 기업들이 뜻을 같이해 감사드린다"며 "CCTV 설치가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기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순사건 치유' 영상에 담아보세요

여수시, 다음달 20일까지 공모전

여수시가 10·19 여순사건의 아픔을 보듬고 예술로 승화하기 위한 영상 공모전을 9월1~20일 진행한다.

'여수·순천 10.19 영상공모전'은 여수시와 사단법인 한국예총 여수지회가 함께 개최한다.

공모전 영상에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다루고 치유·승화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1년 이내 촬영(제작)한 3분 이내 분량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와 영상을 전자우편(ysarts@daum.net)으로 내면 된다.

출품작은 주제, 내용의 적합성, 작품성, 상징성 등을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3명 등에 표창과 상금을 준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